<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을 읽고 이전까지는 나에게 없었던 죽음의 그림을 구체화 해 보여준 것 같았다.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랜 기간 중환자실의 간호사로 있었던 저자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잃어버린 최후가 어떤 것인지,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과는 아직은 먼 도시의 우리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주었다. 나의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며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되는지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고민하지만, 왜 삶의 끝, 죽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죽음을 타인의 것으로만 치부한 채 살아갔던 나에게 어떻게 내 삶을 잘 마무리 해야할지, 가족과 친구들과 잘 이별해야 할지를 모두가 계획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는 행복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지막도 함께하는 직업, 그런 이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위로해 줘야하는 직업이기에 많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도 오랜 간호 생활을 하였지만 결국 직업을 떠난 것처럼, 참 힘든 직업이 아닐까 했다.

앞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보다도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 사람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잘 죽는다면, 그만큼 삶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